



심야노동 NO! 정규직화 YES!

# 금속노조 파업은 지속·확대되어야 한다

7월 20일 금속노조 2차 파업은 1차 때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완성차 노조들과 현대제철, 금호타이어·만도기계 등 주요 부품사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 나라 '최대·최강' 노조들의 파업 시동에 <조선일보>는 "파업 카드만 꺼내들면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측"을 탓하며 한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말기적 위기에 빠진 상황이 저들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 "고소득 귀족"?

그래서 정부와 재계는 '투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명박이 또 구역질나는 얘기를 꺼냈다. "고소득 노조(금속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

그러나 도대체 1퍼센트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해 온 자는 누구인가. 지난해 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벌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진정한 "고소득" 귀족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과 정몽구다. 이런 자들이 노동자들더러 "고소득 귀족 노조" 운운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버려야 한다.

물론,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상대적 고소득은 오랜 투쟁 속에 쟁취한 정당한 성과다.

무엇보다 이런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



거인이 잠을 깨자 난쟁이(MB 등)들이 허둥대고 있다.

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린다는 게 중요하다. 벌써부터 현대 계열사 부품업체들은 현대·기아차 투쟁의 확산을 우려해 서둘러 양보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말한 "금속노조 파업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파업이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더 넓은 층의 노동자들이

게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계와 조종동이 현대·기아차 노조의 금속노조 파업 동참에 발작 증상을 보이는 이유다.

## 투쟁의 낙수 효과

저들은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왜 파업'이냐며 호들갑도 떨지만, 지배자들이 언제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자 파업에 호의적이었던가?

더구나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다. 끝없는 이윤 경쟁과 탐욕이 지금의 세계적 위기를 낳았고,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거품경제 정책이 위기를 심화시켰다.

저들은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긴축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도,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하지도 못한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다.

국가 부도와 도미노 위기에 놓인 유럽을 보라.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빗더미에 앉히고 길거리로 내쫓아 만들었다.

유럽의 유일한 희망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 파업 물결이다. 노동계급의 강력한 파업과 투쟁만이 대중의 삶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정치파업'이 문제라고 집중적으로 두들기지만, 저들은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에도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어 왔다.

결국, '경제 파업'이든, '정치파업'이든 파업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된다. 저들에겐 "무쟁의"의 잠에서 깨어난 완성차 노동자들이 눈엍가시다.

지배자들은, '정치'는 정치인과 자본가들이 할 일이지 노동자는 감히 '정치'를 하지 말라는 식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저들의 재벌·부자 '정치'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법·제도 개선을

▶ 뒷면으로 계속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이 글은 박현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레프트21>(www.left21.com) 과 한 인터뷰다.

“대법원 판결이 두 번이나 났는데도, 사측은 도덕적인 책임조차 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측은 오히려 8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하루라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직고용’이라는 미끼로 2년 미만 한시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아예 박탈한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하는 공정을 분리해 아예 ‘합법’ 도급화 하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죠.

## ‘합법 도급화’

7월 초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는데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조합원도 1백여 명가량 늘었어요. 가입하겠다는 문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제 뭔가 해야겠다’는 정서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원·하청 단결 투쟁이 희망이다.

정몽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해야 승리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산라인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정몽구가 한 번이라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정규직 동지들이 우리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0년 점거파업 때 간식을 건어서 올려 주고, 사측 관리자들을 막아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던 정규직 조합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투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꼭 연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투쟁을 지지했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수 있도록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적극 지원했으면 합니다.”

## ▶ 앞면에서 계속

요구하거나 전국적인 저항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지금 금속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99퍼센트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전국적 단결 투쟁, 즉 정치 투쟁은 서로가 서로를 고무해 투쟁의 근육을 키우고 정치의식을 높인다. 실제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4년 만에 싸움에 나서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속에서 투쟁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8월 휴가 이후에도 투쟁을 지속·강화하며 정부와 사측을 몰아붙여야 한다. 금속노조 파업 속에서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도 연대의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금속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 이것은 ‘이명박 5년간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는 민주노총의 8월 ‘정치파업’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승리를 위해 이렇게 투쟁하자

투쟁의 기운을 확대해 승리로 나아가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선 투쟁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기업주들의 압박과 회유에 흔들리지 말고 싸움을 밀어붙여야 한다. 저들은 어정쩡한 양보로 주간2교대를 누더기로 만들고, 무상주·임금 등으로 회유해 8월 휴가 이후 파업 종료를 유도할 것이다.

이럴 때 주요 노조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며 파업을 끝내 버린다면, 이명박과 정몽구 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노조 같은 주요 완성차 노조가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 없는 주간2교대’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전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총대’ 메고 앞장서야 겁 없이

버티는 정몽구 같은 자들을 무릎 꿇릴 수 있다. 이것은 부품사에도 영향을 미쳐 사측의 양보를 강제하고, 주간2교대 도입의 가능성을 열 것이다.

주요 노조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측의 고용 유연화 시도를 막는 효과를 내, 정규직의 안정된 고용·노동 조건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현대차에서 이 요구를 성취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될 것이다.

## 희망의 불꽃

이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미 금속노조는 8월 중순에 “강도를 높여 3차 파업에 돌입할 것”(박상철

위원장)이라고 밝혔다. 휴가 직후에는 4시간 파업을 넘어 전면 파업을 하고 모두가 도심에 결집해 ‘정치파업’의 힘을 보여 주며,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

현대차지부 등이 계획한 잔업·특근 거부도 지속·확대해야 한다.

금속노조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몽구와 승부를 보겠다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대는 당면한 사측의 공격을 저지하는 행동을 조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가 조직하는 전환배치 거부 투쟁에 정규직 노조와 투사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런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려면 현대차지부 지도부가 원·하청 공동 요구

안으로 제시한 ‘모든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기초를 확고히 하며 이를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울산공장 ‘원·하청 공동투쟁 실천단’과 같은 기층 활동가들의 연대도 중요할 것이다.

노동·사회단체, 학생 활동가들,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비정규직 투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금속노조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기회를 열었다. 역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전진할 때, 금속노조 파업도 더 탄력을 받고 광범한 지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만에 돌아온 투쟁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완성차·부품사, 정규직·비정규직이 똘똘 뭉쳐서 진짜 ‘정치파업’이 무엇인지 보여 주자.